



밀림, 그 끝에 서다 (중학생)

단비청소년 | 정해윤 지음



표지 탐색하기

※ 책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밀림, 그 끝에 서다'를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다음은 책 뒷표지에 쓰인 글의 일부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하면서 책에 나올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조금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

인간의 사고는 시대의 흐름에 비해 느리게 변하고 느리게 적응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의 과정에서 나와 다른 세계나 생각에 대해 갈등하고 현재에 대한 불안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드러낸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갈등과 고민, 번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 또한 또 다른 갈망과 갈등의 표출로 열리게 될 것이다. 다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열린다고 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의 세상	

②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①

※ <밀림, 그 끝에 서다>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가) ·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그것들과 호흡하고 내통하며 의기투합했다.

· 희희낙락대며 밖으로 나가려던 녀석들이 하나둘 전리품을 내던지고 북극곰을 향해 몸을 날렸다.

· 독심술이었다. 주혜는 한마디로 식겁하고 말았다.

· 구두를 신고 또박또박 걷는 신사의 걸음걸이도, 운동화를 꿰고 쳐덕거리며 걷는 소리도 아닌 아버지 특유의 것이었다.

· 흰 운동화의 바닥은 기어이 양쪽 모두 오백 원짜리 동전만 하게 미어저 있었다.

(나) · 아버지는 지금쯤 저 혼자 떠돌고 있는 TV 앞에 앉아 '㉠□□□□□□도 좋다, 못 먹어도 고고고!'를 외치고 있을 것이다.

· "㉡□□□□□□이지만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제."

마을 어른들이 어린 윤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의기투합하다 () 희희낙락대다 () 식겁하다 () 쳐덕거리다 () 미어지다 ()

- ① 뜻밖에 놀라 겁을 먹다. ②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다.
③ 계속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④ 물기가 많거나 차진 물건을 자꾸 힘 있게 두드리다.
⑤ 팽팽한 가족이나 종이 따위가 헤어져서 구멍이 나다.

2) (나)에 제시된 문맥과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에서 밑줄 친 ㉠~㉡의 빈칸에 각각 들어갈 속담을 쓰세요.

- ㉠의 뜻 : 어떤 상황에서든 잘 먹는 것이 좋음을 이르는 말.
㉡의 뜻 : 딸은 집안 살림을 맡아 하게 되므로 큰 밑천이나 다름없다는 말.

⇒ ㉠ :

㉡ :



어휘력 쑥쑥 키우기②

※ <밀림, 그 끝에 서다>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 (가) ① 피라냐 떼가 몰고 온 ()은 위력적이었다.
 ② 밀림은 곧 밥벌이를 위해 출근하는 사람들로 ()이 될 것이므로 윤재가 카메라 앞에 섰다.
 ③ ()의 당사자는 외할아버지였고 국제 전화를 한 사람은 막내 이모였다.
 ④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보면 늙지도 젊지도 않은 신랑의 웃음은 어느새 ()로 바뀌어 있었다.
 ⑤ ()를 꾸미고 있던 경찰관이 혀를 찼다. 합의금은 삼일 뒤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 운동화에 남아 있던 물기가 천천히 거뒀졌다. ㉠다림질이 끝난 운동화를 동우에게 건넸다. / “㉡시침질도 네가 해 줄래?”

1) (가)에 제시된 문맥과 다음 뜻을 참고하여,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조서 :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 부음 :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나 글.
- 북새통 :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
- 조소 : 흥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
- 스쿨 : 열대 지방에서 대류에 의하여 나타나는 세찬 소나기. 강풍, 천둥, 번개 따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

2) (나)에서 밑줄 친 ㉠, ㉡은 ‘~질’로 끝난 말입니다. ㉠, ㉡의 뜻을 조사하여 쓰고, 이로부터 ‘~질’의 뜻을 추리해 보세요.

⇒ ㉠ :

㉡ :

‘~질’ :



독해 연습_밀림, 그 끝에 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무장이 끝났다.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한 무장이 필요하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사바나란 없다. 그곳엔 늘 먹이 사슬이 존재하고, 때 아닌 스콜과 느닷없는 협곡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밤, 윤재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밀림을 소리 없이 둘러봤다. 가벼운 흥분과 또 그만큼의 불안이 가슴을 핏고 지나간다. 윤재가 불안을 털어내듯 목장갑 낀 손을 탁탁 부딪쳤다. 빨간 고무가 덧칠해진 장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낮게 울린 그 소리는 편의점을 되돌아와 윤재의 가슴에 가볍게 었혔다.

(나) '오토바이 녀석들 신고한 사람 같은데?"

윤재가 건우를 뵈히 쳐다봤다.

"확실해, 아까 밖에서 분명히 '경찰서죠?' 하는 말 들었어. 내가 그 말만 믿고 저돌적으로 돌진한 거라니까."

윤재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연수 누나는 도시락을 사러 나오다가 피라냐 떼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이다. 그래도 갑자기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우가 지핀 불씨에 연수 누나가 입김을 불어 넣고 있었다.

1) (가)에서 다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쓰세요.

①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완벽한 무장

② 윤재가 소리 없이 둘러봤던 걸어가야 할 밀림



2) (나)에서 '연수 누나'와 '건우'가 '윤재'의 편의점에서 했던 행동을 정리하여 쓰세요.

⇒ ① 연수 누나 :

② 건우 :



독해 연습_농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 엄마가 눈을 크게 떴다.

"어제 막내 이모가 전화했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부음을 듣고도 울지 않았다. 대신 한숨을 쉬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비행기표 예매했구요."

엄마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는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비행기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만 실감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 "나도 안다. 이곳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물건이든 사람이든 지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법이지. 이제 그만 네 자리로 돌아가." / "죄송해요."

"미안한 건 우리지."

할아버지가 엄마를 보고 말했다. 그러고는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의 농이었다.

농을 받아 든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윤은 당황스러웠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울고 있는 엄마를 달래야 할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윤은 엄마를 달래지 않았다. 엄마의 눈물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눈물이었다. 윤은 엄마의 눈물을 내버려 두었다. 그만 울라고도 하지 않았다. 윤이 기억하는 한 이것은 엄마의 첫 눈물이었다. 눈물은 지금 엄마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이었다.

1) (가)~(나)에 나타난 '엄마'의 행동을 정리하여 쓰세요.

(가) :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부음을 듣고도 울지 않았으며 _____



(나) : 할아버지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라며 _____

2) (나)에서 '윤'에게 '엄마의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찾아 쓰세요.

⇒



포트폴리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와, 저 할머니 장난 아니네."

"모르는 소리 말어. 경은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야."

주혜는 더는 힘을 빼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어 버렸다. 꺾어 보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뭐 어쨌든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보다 중요한 건 아직 주혜의 포트폴리오가 꽤 비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혜는 이번 봉사로 포트폴리오를 꼭 채울 생각이었다.

"특목고 가려고 이 고생이라며?"

"당근이죠, 그거 아니면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나) "우리 사진도 찍어요." / 주혜가 폴라로이드를 할머니 눈앞으로 디밀었다.

"그놈의 사진기가 아직도 필요한겨?"

"'추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기록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뭔, 신소리여?" / 할머니가 앞장서 비탈을 내려가자 리어카가 할머니 뒤를 따랐다. 주혜는 오늘 하루가 기대됐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진짜 재미있는 하루가 펼쳐질 것 같았다. 주혜는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라는 말 대신 할머니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1) (가)~(나)에 나타난 '주혜'의 말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내용을 완성하세요.

(가) : 할머니가 장난 아니라고 말했다
가 입을 다물어 버렸고, _____



(나) : 추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기록이라고 말했고, _____

2) (가)의 '주혜'가 (나)와 같이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생각을 (가)에서 찾아 쓰세요.

⇒



그림자 세탁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동우는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얼굴은 고사하고,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한 남자에 대한 어떤 조짐도 발견한 적이 없다. 사진 따위의 물건이나, 이모나 외삼촌 같은 친척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길이 없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것도 들은 기억이 없다. 어쩌면 그들도 동우처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일곱 살이 되던 해 동우는 외가를 떠나 엄마에게로 왔다. 어쩌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이던 엄마가 결혼을 했다고 이모가 말했다. 엄마를 따라온 곳은 13평 영구 임대 아파트였다. 현관에 들어선 엄마 옆에 늙지도 젊지도 않은 아저씨가 낯설게 웃고 있었다.

"함께 살긴 하지만 우리 남이다!"

(나) 도로를 가로질러 길을 건넜다. 덤프트럭이 쇠소리를 내며 갓길을 스쳐갔다. '너, 거기서. 박동우 개새끼야 거기 서란 말이야' 하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동우와 나는 세탁소와 멀어지고자 애썼다. 졸업을 몇 달 앞둔 중학교가 눈앞에 다가왔다. 담장을 돌아 필사적으로 뛰었다.

후두둑, 장마를 알리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 (가)에서 '동우'는 아버지의 얼굴도 몰랐고, 일곱 살에 엄마와 우리 남이라고 말한 '아저씨'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우'에게 조언하는 말을 써 보세요.

<조건> • 앞으로 '동우'가 '아저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언급할 것

2) (나)에서 세탁소에서 뛰쳐나온 '동우'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붉은 탑에 오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S-13,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나?"

수호자는 레나를 깹뚫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레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을 했다. 레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넬리작스가 끼어들었다.

"그렇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냥 냄새나는 이성애자였던 거야." / 넬리작스의 말에 다른 배심원들이 덩달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이건 프랙탈 측의 엄청난 실수지요."

"맞소, 이번 일을 그냥 넘긴다면 우린 또 다른 이성애자들과 섞여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외침은 작지만 단호하고 격렬한 느낌을 줬다. 레나는 놀라웠다. 세상에 유일하게 자신과 수후만이 이성애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광장에 나타난 그들은 수후와 자신처럼 남녀 커플을 이룬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스스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수신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것은 케플러-62e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다.

1) (가)에서 동성애자들로 이루어진 ‘케플러-62e’에서 ‘레나’는 이성애자라는 이유로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 집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레나’가 광장에 나타난 ‘그들’을 보며 놀랐던 이유를 모두 쓰세요.

<조건> • 케플러-62e의 일원과 관련된 행동을 포함할 것

⇒



파마의 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신화 속 악마잖아요?"

참지 못한 내가 기어이 입을 열었다. 미스 파마는 흥측했다.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 그 많은 털 밑으로 수많은 눈이 깨어 있었다. 거기다 깃털 하나하나에는 혀가 달려 있었다. 그것들은 소리를 엿듣는 귀와 소리를 실어 나르는 입이었다.

"맞아. 미스 파마야."

"악마, 아니 미스 파마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다 마다. 미스 파마는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냥감을 찾아 헤매고 있단다." / 할머니가 허공을 향해 말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뭔가를 향해 '네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하는 것 같았다.

(나) ㉠ "애들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것은 밀물이 끝나기 전에야!"

할머니가 아까 했던 말을 또 했다. / "어른들은 저게 문제라니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다 알아들었는데 너무 지겹잖아. 안 그래, 보나?"

파리메가 답답하다는 듯 할머니 말을 막았다. 할머니가 그런 파리메의 머리를 콩 쥐어박았다. 파리메는 쥐어박혀도 싸다. 나는 '바다가 열리는 게 끝나기 전에, 밀물이 끝나기 전에!'를 뇌고 또 뇌뇌었다. 할머니 말은 열 번을 들어도 또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다 이번만큼은 꼭 새겨들어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

1) (가)에서 '미스 파나'의 온몸에 덮여 있는 '깃털'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

2) (나)에서 '할머니'의 말 ㉠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을 정리하여 쓰세요.

① 파리메 : 할머니가 아까 했던 말을 또 하자, _____

⇔

② '나'(보나) : 할머니가 했던 말을 뇌고 또 뇌뇌었으며 _____



정답과 해설

1쪽	1) (예시답안) 밀림의 끝에 서 있으면 무척 험난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예시답안) 초승달이 뜬 밤에 열대 식물로 둘러싸인 스마일 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 복장을 한 소년이 두 손으로 박스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3) ① 우리가 사는 세상 : 갈등과 고민, 번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 / 앞으로의 세상 : 또 다른 갈망과 갈등의 표출로 열리게 될 것 ② 사람
2쪽	1) (순서대로) ②, ③, ①, ④, ⑤ 2) ㉠ : 먹고 죽은 귀신 때깔, ㉡ : 첫 딸은 살림 밑천
3쪽	1) ① 스쿨, ② 북새통, ③ 부음, ④ 조소, ⑤ 조서 2) ㉠ : 다리미로 옷이나 천 따위를 다리는 일. / ㉡ : 바느질을 할 때 천을 맞대어 등성듬성하게 대강 호는 일. / '~질' : ~하는 일
4쪽	1) ① 빨간 고무가 덧칠해진 목장갑을 낀 손 ② 편의점(세상) 2) ① 오토바이 녀석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음 ② 오토바이 녀석들에게 저돌적으로 돌진했음
5쪽	1) (가) : 대신 한숨을 쉬었고,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는 윤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음 (나) : 내밀었던 농을 받아 든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서 윤은 당황스러웠음 2) 기다리고 기다리던 눈물이었고, 엄마의 첫 눈물이었고, 눈물은 지금 엄마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이었음
6쪽	1) (가) :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꽤 비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번 봉사로 꼭 채울 생각이었음 / (나) : 할머니와 함께라면 진짜 재미있는 하루가 펼쳐질 것 같았고, 할머니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음 2) 겪어 보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설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7쪽	1) (예시답안) 동우야! 외가에서 명절에나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일곱 살에 엄마를 따라가 우린 남이라는 의붓아버지인 아저씨와 살게 되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 앞으로 아저씨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2) 동우의 분열된 자아가 '나'였음
8쪽	1) (예시답안) 케플러-62e의 보편적인 성 개념은 동성 간의 사랑만을 허용하는 동성애이고 이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레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도 냄새나는 이성애자라고 하며 섞여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렇게 소수 집단을 보편적이지 않다며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2) 그들은 남녀 커플을 이룬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스스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수신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9쪽	1)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없이 전달하는 것 2) ① 어른들은 저게 문제라며 다 알아들었는데 너무 지겹다고 말했다가 할머니에게 쥐어박혔음 / ② 할머니 말은 열 번을 들어도 또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음